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실태: 2006년부터 2015년에 상영된 인기영화를 중심으로

김진영¹ · 유현재² · 이성규^{3*}

¹한림대학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²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³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Exposure of Smoking Scenes in the Popular Movies, Released between 2006 and 2015

Jinyoung Kim¹, Hyunjae Yu², Sungkyu Lee^{3*}

¹Southern Gyeonggi Regional Smoking Cessation Centre, Hallym University, Anyang, ²School of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³National Tobacco Control Centre,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Seoul, Korea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rends in smoking scene exposures in popular movies released in Korea.

Methods: One hundred commercially successful movies that were released from 2006 to 2015 were selected from the Korea Film Council's database. Ten monitoring teams watched the selected movies to collect data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authors.

Results: The total smoking scene exposures in 100 movies released from 2006 to 2015 was 618. On average, there were 2.7 smoking scene exposures in PG-13 rated movies and 7.5 smoking scene exposures in R rated movies. Smoking scene exposures in the movies that youth could watch (PG-13 and R rated movies) have increased by almost 50% from 42 times in 2006 to 64 times in 2015. One-third of the smoking scenes (123 out of 372) was shown without any relevance to the storyline of the movie, while almost 17% of the smoking scenes were when actors faced stress or divorce. Worry and violation were other situations where smoking scenes were shown. Thirty-five percent of smoking scenes (135 out of 379) portrayed actors smoking in non-smoking areas, including schools, restaurants, or public places, while 15.6% and 8.7% of the smoking scenes took place in the home and street, respectively.

Conclusion: Global and domestic efforts to achieve de-normalization of tobacco use in real life can be undermined by smoking scene exposures in movies. Monitoring and protecting youths from exposure to smoking scenes in PG-13 and R rated movies are needed.

Key Words: Tobacco; Tobacco use; Smoking Scene; Movie; Youth

접수일 : 2020년 4월 9일
수정일 : 2020년 5월 10일
승인일 : 2020년 5월 22일

*교신저자 : 이성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E-mail: wwwvince77@gmail.com

ORCID:
<https://orcid.org/0000-0002-6419-2086>

Copyright © 2020 b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배 경

청소년 흡연시작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화, TV 등과 같은 대중매체 속 흡연장면 노출은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6)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이 적은 청소년에 비해 노출이 많은 청소년의 흡연시작 가능성이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7-10) 또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화 관람 중 노출되는 흡연장면이 담배 회사의 직접적인 광고보다 청소년 흡연시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 뿐만 아니라, 비흡연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흡연하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에 관한 담배회사 내부분건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국적담배회사(transnational tobacco company, TTC)는 오래 전부터 영화에 담배제품을 직·간접적으로 광고하거나 영화의 주요장면에서 배우가 흡연하는 장면을 넣기 위해서 영화제작을 지원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이러한 담배회사의 전략은 미국의 경우 1920년대 후반부터 실행으로 옮겨졌다.(13) 그러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TV 프로그램이 더 대중화되면서 담배회사 역시 영화보다는 TV를 통한 담배광고 및 흡연장면 노출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 실제 필립모리스사의 과거 내부분건을 살펴보면 Hamish Maxwell 사장은 영화관에서 영화 속 주연 배우의 손에 담배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용기를 얻고 있으며, 영화 장면 속에서 담배를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4) 1964년, 미국 연방의무감보고서(US Surgeon General Report)가 흡연과 질병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발표한 후 TV 속 흡연장면 및 담배광고는 점차 사라졌고, 결국 1971년 법으로 TV 방송 중 담배제품 광고를 금지시켰다. 그러자 담배회사들은 다시 영화에 눈을 돌려 오늘날까지도 영화를 담배 혹은 흡연시작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영화, 비디오물의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 등과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시청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여부가 영화 등의 시청등급을 결정하는데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 등은 방송내용에 흡연장면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고 서로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가끔 약속과 달리 드라마

나 예능프로그램에서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4에 따라 담배제품에 관한 직·간접적인 광고는 담배소매점 내부에서만 허용되고, 제한적으로 신문과 잡지 등에서 광고가 가능하지만 TV, 라디오, 영화 등을 통한 담배광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영화 속 흡연장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영화는 그 특성 상 한 국가에 국한된 미디어라기보다는 전 세계로 빠르고, 쉽게 전파되는 매체이다.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영화가 또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장면과 같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영화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실태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한 만큼,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개봉된 영화 중 연도별 영화흥행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영화 총 100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흡연장면 노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청소년들이 관람 가능한 영화에서는 더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흡연시작 및 지속에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 개봉영화(국내·외 제작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횟수,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흡연장면 노출횟수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대상 영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총 6단계에 걸쳐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수행 1단계에서는 실태조사 대상 영화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Korea Film Council)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사이트(www.kobis.or.kr)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 간 연도별 흥행 1위부터 10위에 해당하는 영화 100편을 선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선행연구 결과(2,8,9)를 근거로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실태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내용(영화 속 흡연장면 정의, 노출시점, 흡연상황 등)을 선정하고, 조사내용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였다.

3단계는 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조사원들이 사용하게 될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개발한 후, 사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4 단계에서는 모니터링 프로토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프로토콜을 완성하였다. 5단계에서는 영화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고, 모니터링 수행 전 사전 교육을 통해 모니터링 프로토콜 및 데이터 코딩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조사 대상 영화 1편 당 2인 1조로 모니터링 요원을 구성하여 100편 영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연도별로 흥행순위가 중복되는 4편의 영화는 1회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96편의 영화에 대한 흡연장면 노출실태를 조사하였다.

영화 속 흡연장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선행연구들(7,15,16)에서 사용했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진에서 자체 개발하였다. ‘영화 속 흡연장면’은 주연, 조연, 엑스트라가 직접 흡연을 하거나, 직접 흡연을 하지 않지만, 담배를 입에 물고만 있거나 혹은 손에 담배를 들고만 있는 경우, 대사 중에 ‘담배’라는 단어를 언급하거나 담배 브랜드나 담배와 관련된 용품(담뱃갑, 재떨이, 라이터 등)이 화면에 노출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흡연장면 노출시간’은 영화에서 흡연장면 노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더 이상 노출되지 않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며, 한 장면에서 흡연장면이 2회 이상 노출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면으로 간주하며, 실제 직접 흡연장면이 나오지 않더라도 ‘흡연장면’의 정의에 의해서 흡연으로 간주하여 노출시간을 기록하였다. ‘흡연상황’은 습관적 상황, 이혼, 사망, 실패 등의 상황, 고민이 있거나, 폭력적인 상황이나, 휴식하는 경우, 음주나 게임, 도박, 마약 등을 하거나, 운전 중, 결혼, 출산 등의 행복한 상황, 사고를 위한 상황 등 13가지로 분류하였다. 특히, ‘습관적 흡연’은 영화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면에서 흡연장면을 삽입할 뚜렷한 목적이 없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영화 속 흡연장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화 1편당 2명의 실태조사 모니터링 요원이 짝을 이루어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영화 96편(연도별 중복 4편은 1편으로 취급)의 모니터링 요원은 20명이었으며, 모니터링 요원 1명 당 9-10편의 영화를 등급기준과 영화 상영시간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영화 속 흡연장면 실태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 간 내용일치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Cohen’s kappa를 사용하였다. Cohen’s kappa는 평가자 간의 일치도가 과대 추정되는 일치도 통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며, 두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계산하기 위해 카파계수(coefficient of

kappa)를 사용한다. 카파계수는 0 이상 1.0 이하의 값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1차와 2차 모니터링 요원의 Cohen’s kappa 값은 0.706으로 모니터링 요원 A와 B 간의 실태조사 내용이 ‘상당한 일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대상 영화속 흡연장면, 흡연 노출시간, 흡연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Statistics 20.0을 사용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 영화 100편을 살펴본 결과 영화등급별로 구분하면, 12세 이상 관람 영화가 47편(47%)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이상 관람가가 37편(37%), 청소년 관람불가 11편(11%), 전체관람가 5편(5%)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연도별 1위-10위에 해당되는 영화들은 대부분이 12세 이상 혹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였는데, 2010년의 경우에만 청소년 관람불가가 10편 중 3편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즉, 영화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의 경우 청소년 관람불가는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조사대상 영화를 제작 국가별로 구분하면 한국영화가 60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영화가 36편, 미국/한국 합작영화가 3편, 한국/홍콩 합작영화가 1편이었다.

100편의 영화 속 흡연장면 총 노출횟수는 618회였으며, 영화 1편당 평균 노출횟수는 6.2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관람등급에 따라서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서 평균 19.5회의 흡연장면이 노출되었고, 그 다음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영화 1편당 평균 흡연장면 노출횟수가 7.5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장면 평균 노출횟수는 2006년이 10.2회로 가장 많았고, 2011년이 3.4회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횟수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현재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2015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8배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연도별 흡연장면 노출횟수 및 총 노출 시간

연도별로 흡연장면 노출횟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관람가’ 영화에서는 흡연장면이 노출되지 않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전체 100편의 영화 중 12세 이상/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84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연도별 흡연장면 노출횟수와 노출시간을 분석하였다. 12세 이상/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연도별로

흥행영화 편수가 다르기 때문에 10편을 기준으로 영화편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노출횟수를 분석하였다. 12세 이상/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횟수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도에 급격히 감소,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흡연장면 노출횟수가 64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흡연장면 노출횟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던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흥행영화 1위-10위 사이에 미국영화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나(2007년 50.0%, 2011년 42.9%), 2012년 이후에는 흥행 1위-10위 사이에 한국영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노출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던 2013년의 흥행영화 1위-10위 사이 미국영화 비중은 10.0%로 가장 낮았다.

배급사별로 구분해보면 흡연장면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화를 배급하는 곳은 씨제이엔엠이었다. 그러나 이는 흥행됐던 영화편수가 많아 흡연장면 노출이 많은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배급사별로 각 회사들이 배급한 영화 속 흡연장면 평균 노출횟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쇼박스과 넥스트엔터테인먼트가 영화 1편당 평균 11회로 흡연장면을 가장 많이 노출시켰으며, 그 다음으로 이십세기폭스코리아 8회, 씨제이&시네마서비스(공동배급) 7회, 씨제이엔엠 6.3회로 조사되었다(표 1).

12세 이상/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흡연장면 평균 노출시간은 31.3초였으며, 2013년의 경우 한 장면에서 최대 261초까지 흡연장면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장면 평균 노출시간이 가장 길었던 것은 2008년에 개봉된 영화들이었고, 뒤를 2006년, 2013년 영화들이 이었다.

Figure 1. Number of smoking scenes exposures in the movies that were released between 2006 and 2015.

※ Adjustment: N of smoking scenes exposures / N of movies released each year × 100.

2. 영화 속 흡연장면 세부내용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과 관련하여 배우가 직접 흡연하는 장면을 직접 노출 장면으로, 그리고 배우가 직접 흡연은 하지 않지만 담배를 손에 들고 있거나 입에 물고만 있는 경우, 또는 담배 브랜드 노출이나 담배관련 용품 등이 노출되는 경우 등을 간접 노출 장면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직접 흡연하는 장면이 218회(41.8%)로 가장 많았고, 담배나 재떨이, 라이터 등 담배관련 용품만 노출된 장면이 161회(30.8%)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으며, 담배를 손에만 들고 있는 장면이 43회(8.2%), 담배를 입에 물고만 있는 장면이 39회(7.5%)로 조사되었다. 담배 브랜드만 노출된 경우도 29회(5.6%)로 조사되었다.

12세 이상/15세 이상 관람 가능한 영화 속 흡연장면 총 403회 중 담배브랜드가 식별 가능한 노출장면은 25회였다. 그 중에서 말보루가 10회(40.0%)로 가장 많이 노출되었고, 그 다음으로 던힐이 3회(12.0%)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래중, 순예씨, 듀폰, Time, PARLIAMENT, 88담배도 각 1회씩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배용품 노출장면은 전체 흡연장면 403회 중에서 중복으로 체크하여 총 161회 노출되었다. 가장 많이 노출된 담배용품은 재떨이(74회, 30.1%)였으며, 다음으로 라이터 57회(23.2%)였으며, 담뱃갑 42회(17.1%), 담배와 성냥이 각각 29회(11.8%)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사전교육 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그에 맞는 상황에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영화 흐름상 불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습관적 상황에서의 흡연장면 노출이 123회(32.9%)로 가장 많

Figure 2. An example of smoking scene in the movie titled, "Public Enemy Returns, R-rate" which was released in 2008. Image source: Naver movie home. <https://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68217>

Table 1. Number of smoking scene exposure in movies by distributor (n = 403).

	Distributor	Number of movies that the distributor released	Number of smoking scene exposure	Average number of smoking scene exposure in a movie*
1	CJ E&M	24	150	6.3
2	SHOWBOX	12	134	11.2
3	Next Entertainment	6	66	11.0
4	Lotte Entertainment	4	17	4.3
5	Universal picture interventional Korea	2	10	5.0
6	21 century fox Korea	1	8	8.0
7	CJ & cinema service	1	7	7.0
8	Sony pictures releasing walt disney studios Korea	2	6	3.0
9	Korea sony pictures releasing buena vista	1	2	2.0
10	Walt disney company Korea	1	1	1.0
11	Warner Brothers Pictures	1	1	1.0
12	Etc	1	1	1.0

*Average number of smoking scene exposure in a movie = Total number of smoking scene exposure/Number of movies that the distributor released.

았으며, 다음으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혼, 사망, 실패, 슬픔 등의 상황에서 63회(16.8%)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39회(10.4%) 노출되었으며, 싸움이 있던 폭력적인 상황에서 32회(8.6%), 단순히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하는 상황에서 31회(8.3%)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음주를 하는 상황(17회, 5.1%), 게임이나 도박하는 상황(13회, 2.7%), 행복한 상황(7회, 1.9%) 등에서도 흡연장면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속 흡연장면에 등장하는 흡연배우의 특성을 성별, 연령별, 배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영화 속 흡연하는 배우 중 남자는 84.9%, 여자는 15.1%이었으며, 영화에 등장하는 흡연자 대부분은 성인(95.1%)이었으나, 청소년이 흡연하는 경우도 4.0% 정도로 조사되었다. 배역으로 구분하면 주연배우가 흡연하는 경우가 46.1%로 엑스트라 28.8%로 조연 25.1%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영화 속에서 흡연장면이 가장 많이 노출된 장소는 금연구역(호텔, 학교, 식당, 기차 혹은 버스정류장, 술집, 카페, PC방, 사무실)이 135회(3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집 또는 집 근처가 59회(15.6%), 길거리 33회(8.7%), 산, 창고, 자동차가 각각 12회(3.2%), 도박장이 7회(1.8%), 옥상, 주차장, 화장실이 각각 3회(0.8%) 순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흥행순위 1위부터 10위에 해당되는 영화 100편에 대한 흡연장면 노출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 전체관람가 등급의 영화에서는 흡연장면이 단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행스러운 결과로 어린 아이들이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관람가 영화에서의 흡연장면 노출은 전체 100편의 평균 노출횟수 6.2회보다 높은 7.5회로 조사되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횟수는 지난 10년 간 2011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유지되거나 상승했고, 2006년에 비해 2015년 흡연장면 노출횟수는 42회에서 64회로 1.5배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내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횟수 변화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미국은 영화 배급사들이 앞장서서 청소년의 관람이 가능한 영화의 경우 흡연장면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 내 연구자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 결과를 특정 웹사이트(<https://smokefreemovies.ucsf.edu/>)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흡연장면 노출과 관련하여 영화 제작사 및 배우, 작가, 감독 등의 실명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영화계가 스스로 영화 속 흡연장면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

는 것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상황은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이 청소년 흡연시작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이슈화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 흡연장면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간 흡연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빈도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우리사회 및 주변에서는 흡연자가 줄고 있지만 영화에서는 흡연하는 모습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우리사회의 흡연을 변화가 영화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장면이 가장 많이 노출된 것 역시 실제 집행되고 있는 금연정책이 영화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실과 달리 흡연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화적 공간에 현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영화관계자들에게 담배규제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영화 속 흡연장면을 줄이는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청소년들은 영화나 미디어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흡연장면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모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화감독이나 작가들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영화계에 접촉하는 담배업계의 전략을 사전에 영화계 종사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담배규제분야 전문가들과 상호 유기적인 소통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흡연은 엄연히 청소년에게는 금지된 행위임에도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영화에서 흡연장면이 노출된다는 것은 영화 등급분류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화 분류 등급과 관계없이 영화 속에서 흡연장면 노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예술성,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에서만은 흡연장면 노출을 배제하거나 통제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영화 등급분류 기준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흡연장면 노출여부를 시청등급 판정에 중요한 요소로 명시해 실제 개봉영화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은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행결과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서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이 우리나라 흡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임을 인식시키고, 영화 속 흡연장면을 줄이는 활동에 국민 모두, 그리고 특별히 영화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

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영화 속 흡연장면 모니터링은 이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3조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이 권고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영화 속 흡연장면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감독 및 배우들을 대상으로 담배회사의 후원을 통해 영화 속에서 흡연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청소년의 흡연시작, 더 나아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서 자발적으로 영화 내용과 관계없는 흡연장면은 영화에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인도정부는 영화에 흡연장면이 나올 경우 반드시 금연광고 혹은 경고 문구를 영화에 삽입해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전략도 우리나라가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속 흡연장면이 흡연시작과 지속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화시작 전, 종료 후 금연광고를 반드시 상영하게 하거나, 흡연장면이 영화에 노출되는 장면에서는 경고 문구를 함께 삽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인도정부의 새로운 접근전략이 지난 2019년 5월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담배규제정책 강화 계획에 포함(17)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국내에 실질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담배규제분야 전문가 및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역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영화 속 흡연장면, 그리고 각종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영상물이나 온라인 콘텐츠 속 흡연장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경우 흡연의 건강폐해에 집중해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결국 청소년은 본인들이 즐겨보는 매체에서 노출되는 흡연장면에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 내용 자체에 왜 영화 및 각종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매체에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것인지 그 이유(담배회사의 전략)를 교육하고, 결국 이런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이 담배회사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담배규제정책이 더욱 강화될 경우 영화가 담배회사의 담배제품 혹은 흡연행위의 마케팅

공간으로 더욱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함께 정부, 담배규제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 및 개선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과제 연구개발비 지원(11-1352000-001888-01)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요 약

연구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국내에 개봉된 영화 속 흡연장면노출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방법: 영화진흥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개봉된 영화 중 연도별 흥행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영화 총 100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0개의 모니터링팀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된 구조화된 모니터링 조사지를 이용해 조사대상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결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 간 연도별 흥행순위 1-10위까지의 영화 100편을 분석한 결과 흡연장면 노출 횟수는 총 618회로 조사되었다. 12세 이상 관람 가능한 영화에서는 평균 2.7회의 흡연장면이 노출되었고, 1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한 영화에서는 평균 7.5회의 흡연장면이 노출되었다.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12세 이상 및 15세 이상 영화에서 흡연장면 노출 횟수는 2006년 42회에서 2015년 64회로 약 50% 상승하였다.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화 속 상황을 살펴보면 영화 속에서 노출된 흡연장면의 약 3분의 1에서는 영화 속 이야기와 전혀 관계없이 흡연장면이 노출되고 있었고, 17%는 주로 배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혼과 같은 상황에서 흡연장면이 포함되었다. 근심,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흡연장면은 노출되고 있었다. 흡연장면이 노출된 장면 중 약 35%는 현실 속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예컨대 학교, 레스토랑, 공공장소 등에서 출연자가 흡연을 하고 있었고, 15.6%는 집 안에서, 8.7%는 거리에서 흡연하는 것이 노출되었다.

결론: 현실 속에서는 흡연행위를 비규범화하기 위한 국내외적 노력이 많지만 영화 속에서 노출되는 흡연장면들은 이런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영화에 있어서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담배; 담배사용; 흡연장면; 영화; 청소년

References

1. Song AV, Ling PM, Neilands TB, Glantz SA. Smoking in movies and increased smoking among young adul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07; 33(5): 396-403.
2. Dalton MA, Beach ML, Adachi-Mejia AM, Longacre MR, Matzkin AL, Sargent JD, et al. Early exposure to movie smoking predicts established smoking by older teens and young adults. *Pediatrics*. 2009; 123(4): e551-e558.
3. Hunt K, Sweeting H, Sargent J, Lewars H, Cin SD, Worth K. An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seeing smoking in films and tobacco use in young adults in the west of Scotland: cross-sectional study. *Health Education Research*. 2009; 24(1): 22-31.
4. Titus-Ernstoff L, Dalton MA, Adachi-Mejia AM, Longacre MR, Beach ML. Longitudinal study of viewing smoking in movies and initiation of smoking by children. *Pediatrics*. 2008; 121(1): 15-21.
5. Wilkinson AV, Spitz MR, Prokhorov AV, Bondy ML, Shete S, Sargent JD. Exposure to smoking imagery in the movies and experimenting with cigarettes among Mexican heritage youth. *Cancer Epidemiology and Prevention Biomarkers*. 2009; 18(12): 3435-43.
6. Lorenzo-Blanco EI, Abad-Vivero EN, Barrientos-Gutierrez I, Arillo-Santillán E, Pérez Hernández R, Unger JB, et al. Movie language orientation, gender, movie smoking exposure, and smoking susceptibility among youth in Mexico. *Nicotine and Tobacco Research*. 2018 Sep 25; 20(11): 1378-85.
7. Sargent JD, Beach ML, Dalton MA, Mott LA, Tickle JJ, Ahrens MB, et al. Effect of seeing tobacco use in films on trying smoking among adolescents: cross sectional study. *BMJ (British Medical Journal)*. 2001; 323(7326): 1394-7.
8. Sargent JD, Beach ML, Adachi-Mejia AM, Gibson JJ, Titus-Ernstoff LT, Carusi CP, et al. Exposure to movie smoking: its relation to smoking initiation among US adolescents. *Pediatrics*. 2005; 116(5): 1183-91.
9. Hanewinkel R, Tanski SE, Sargent JD. Exposure to alcohol use in motion pictures and teen drinking in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07; 36(5): 1068-77.
10. Thrasher JF, Jackson C, Arillo-Santillán E, Sargent JD. Exposure to smoking imagery in popular films and adolescent smoking in Mexico.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08; 35(2): 95-102.
11. Charlesworth A, Glantz SA. Smoking in the movies increases adolescent smoking: a review. *Pediatrics*. 2005; 116(6): 1516-28.
12. Leonardi-Bee J, Nderi M, Britton J. Smoking in movies and smoking initiation in adolescent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ddiction*. 2016 Oct; 111(10):1750-63.

13. Smokefreemovies.ucsf.edu [Interne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smoke free movies. Available from: <http://smokefreemovies.ucsf.edu/history>
14. Truth Tobacco Industry Documents [TTID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Available from: <https://www.industrydocuments.ucsf.edu/tobacco/>
15. Dalton MA, Tickle JJ, Sargent JD, Beach ML, Ahrens MB, Heatherton TF. The incidence and context of tobacco use in popular movies from 1988 to 1997. *Preventive medicine*. 2002; 34(5): 516-23.
16. Kim YG, Lee S, Lee HG, Ji SH. Association between Exposures of Smoking Scenes in Movies and Smoking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3; 33(4): 497-517.
1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moking-cessation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2019. 5. 22.